

CSF 이슈분석



2017-06

「사회·문화」

중국의 최근 환경오염 대응 현황

주요 이슈

홍진희 전문연구원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

💡 주요내용

- 최근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부각됨.
-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,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음.
-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 및 관리규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, 하수 처리 서비스 등 환경서비스 산업 분야 및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분야에 대중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환경오염 관련 규제는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중국의 최근 규제 및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대응을 해야 함.

1. 이슈 현황

■ 최근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부각됨.

- 2016년 12월말 중국서부 쓰촨성 간쓰저우룽다(甘孜州融達)리튬광산에서 나온 폐기물로 주변지역에 오염발생
 - 광산채굴로 인근 리치강이 오염되어 물고기 및 인근에서 목축 중이던 야크들이 집단 폐사함.
- 2016년 12월 29일~ 2017년 1월 5일 텐진시 중대대기오염 긴급지휘부(天津市重污染天气应急指挥部)는 스모그 황색경보를 발령함.
- 1월 3일, 사상 첫 안개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음.
- 1월 8일, 베이징시정부는 212시간동안 미세먼지 경보조치를 발령하였음.

■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,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음. (표1 참조)

-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¹⁾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‘환경보호세법’을 시행하기로 결정함.
 - 기존의 오염배출비제도²⁾를 근거로 환경보호세법의 세목을 설치하였으며, 기존 제도에 비해 징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 -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감독기관이 환경보호부에서 세부당국으로 이전되어 관리가 강화될 것임.
- 국무원은 ‘생산자 책임 연장제도 추진방안’을 발표하여 생산자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디자인, 유통 및 소비, 재활용, 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환경보호 책임을 지도록 함.

1) 2016년 12월 26일 개최함.

2) 오염배출비 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 대하여 배출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임.

- 2020년까지 일부 품종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률 40%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2025년까지는 일부 제품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20%까지 제고하고,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률 50%를 달성할 방침임.

□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‘신에너지차 재정보조금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’ 및 ‘신에너지차 감독 관리 업무강화 통지’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새롭게 선정함.

- 기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기준을 적용하며,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- 충칭시가 발표한 ‘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’³⁾은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번호판 등록 시,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.
-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환경 관리 규제라는 의미를 가짐.

표. 최근 발표된 중국 환경보호 및 관리 규제

시기	규제	내용
16.12.25	환경보호세법 (环境保护税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오염배출비제도에 근거하여 정비됨. - 중국 분토 및 해역 내에서 직접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/사업체와 생산경영자를 대상으로 함. *직접 과세대상: 수질오염물, 대기오염물, 고체폐기물과 소음 등 - 오염배출비 징수 기준을 환경보호세의 최저 선으로 설정 - 농업생산(대량양식 제외), 자동차, 철도, 항공기, 선박 등에 대해서는 면세 조치함. - 배출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기준의 50% 미만일 경우 환경보호세도 50% 감면 조치
16.12.30	신에너지차 재정보조금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(关于调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함. - 2,193종의 차종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더 높은 기술 기준을 적용하여,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종에는 신에너지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
17. 1. 1	국(國)V 규정 전국적 시행 및 베이징 제 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기가스 배출 시행 기준인 국(國)V 규정의 시행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 - 베이징시, 자동차용 가솔린 및 디젤의 품질과 관련한 표준규정을 발표함. 이를 통해 저품질 연료사용을 규제하고 배기가스를 제한하며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함.
17. 1. 3	생산자 책임 연장 제도 추진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산자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디자인, 유통 및 소비, 재활용, 폐기물처리 등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환경보호 책임을 부담함. - 2020년까지 일부 품종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률 40% 달성을 목표로 하며, 2025년까지는 일부 제품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20%까지 제고하고,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률 50%를 달성 목표로 함.

자료 : 중국공업정보화부, 중국통신망, 한국경제, 뉴스핌 등

3) 충칭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 (重庆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加快新能源汽车推广应用的实施意见)

2. 원인과 분석

-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 및 관리규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, 하수처리 서비스 등 환경서비스 산업 분야 및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분야에 대중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환경오염 관련 규제는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중국의 최근 규제 및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대응을 해야 함. CSF

💡 CSF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